



[산업]
현대자동차그룹
수소 경제 '퍼스트무버'
年 50만대 생산 구축
05

'관치연금', KAL 첫 타깃 삼나… 의결권 행사 관심

Why?

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

14일 국민연금 운용委 개최
참여연대, 대한항공 사태 관련
주주권 행사 안건 상정 촉구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수탁자책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연금 사회주의' 논란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시장은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단순 '기업 흡집내기'가 아닌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연다. 참여연대는 이날 한진그룹 조약호 회장에 대한 임·직무정지, 총수일 가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금사회주의 vs 연금자본주의
국민연금의 첫 주주권 행사 기업은 대한항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향후 시금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 지난 5월 진행된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는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 경영진이 의미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0.64% 보유한 2대 주주다.

그러나 막상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행동이 기업 경영권에 대한 간섭, 즉 '연금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의 분할·합병 등 명백히 기금의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이사·감사 선임 등 세부적인 경영 판단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재계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652조 7000억 원(9월 말 기준) 규모로 불어난 국민연금 운용자산을 동원해 기업 주주총회에서 정부의 도리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7월 복지부 전체 회의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업에서 거론하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대해 '연금 자본주의'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세계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데 비해 우리는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보지만 나라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와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 "행동주의 펀드와 차별성 있어야"

이처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주주 가치 제고에 힘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이다. 현재 한국의 주가 수준은 주요 국가 지수 대비 저평가된 상태다. 이는 낮은 배당성향의 영향이 크다. 실제 모건스탠리캐피탈리수(MSCI) 기준 한국의 12개 월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0.9배인데, 한국처럼 정보기술(IT)의 증시 비중이 높은 대만은 배당수익률 덕분에 PBR이 1.5 배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배당수익률은 1.7%, 대만은 3.8%다.

다만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 펀드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따르는 기관투자가는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5~10년 장기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 펀드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과 같은 펀드가 되어 행동주의 펀드에 맞설 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임자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구로고가차도 41년 만에 철거

구로고가차도가 41년 만에 철거된다. 서울시는 구로고가차도 철거를 위해 11일 0시부터 구로고가차도 사당방면(김포공항→사당) 통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교통체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진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고가차도. /연합뉴스

"꼰대 사절… 상명하복 못 참아…"

고용 한파에도 4명 중 1명 '사표'

#. "이 박스 안에 있는 서류 중에서 개인정보 포함된 것만 따로 분류해서 파쇄기에 좀 넣어줘. 내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야 하거든"

대기업 신입사원인 이소영(27가명) 씨는 팀장의 지시를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연말 업무 보고 때문에 며칠째 자정 넘어서까지 일하는 그에게 팀장이 잡무까지 떠맡기고 정시 퇴근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소영 씨가 다음날 팀장에게 "이 정도는 직접 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라며 따져 묻자 그는 "내가 막내일 때는 선배들이 이런 거 지시 안 해도 알아서 눈치껏 했는데, 요즘 애들은 뭐만 시키면 꼬박꼬박 말대꾸"라며 편장을 줬다. 소영 씨는 "우리 팀 꼰대(팀장)는 어려운 일은 무능해서 못하고, 잡일은 하기 싫어서 안 하면서 연봉은 7000~8000만원 씩 가져간다. 팀장 때문에 회사 때려치고 싶다"고 말했다.

대졸신입 취업 경쟁률 36:1
1년 내 퇴사율 28% 달해
조직·직무적응 실패 '최다'

역대 최악의 고용 한파에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신입 직원들이 '까라면 까'라는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강행하고 있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튜비미지

졸 신입사원의 취업경쟁률은 평균 35.7:1로 2015년 32.3:1보다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의 2016년 조사에 의하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2014년 25.2%에 비해 2.5%포인트 증가했다.

젊은 취업문을 어렵게 통과하고 도 1년 안에 회사를 떠나는 신입 이 4명 중 1명이란 뜻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이유로는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가 가장 많았다"며 "조기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청년들의 첫 직장 근속기간도 줄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핑에 실린 '청년의 첫 직장과 잠재경제활동

인구'에 따르면,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의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5개월로 11년 전인 2007년 18개월에 비해 3개월 줄었다. 퇴사 사유로는 '근로여건 불만족'의 비중이 2004년 39.4%에서 2017년 51%로 11.6% 포인트 증가했다.

꼰대는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퇴사유발자'였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750명을 대상으로 '꼰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사내에 꼰대가 있다'고 답했다. '꼰대 때문에 퇴사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8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퇴사'를 행동으로 옮겼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올해 3월 기업 인사담당자 657명을 대상으로 벌인 '퇴사자 현황과 변화' 조사 결과 1년차 이하 신입사원의 퇴사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율이 가장 높은 연자는 '1년차 이하'가 49%로 가장 많았고, 2년차(20.9%), 3년차(13.4%), 4년차(5%)가 뒤를 이었다. 직급 역시 '사원급'이 61.4%로 가장 많았다.

신입들의 잣은 이탈로 인사담당자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기업 인사담당자의 55.5%가 퇴사자 발생 시 '공백기로 인한 업무 차질'을 가장 염려했다.

(2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jk1@

명품 '불황 무풍지대'… 20대가 견인

2030대 '가치소비' 확산
4050대 여성의 구매 증가
백화점 매출·영업의 견인



롯데백화점 광주점 해외명품 매장에서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롯데백화점

품이다. 롯데백화점 명품 소비의 경우 올 1~1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8.7% 신장했다. 3년새 늘고 있어 주목할만하다. 신세계백화점은 전체 19.1% 신장했으며, 현대백화점은 14.2%를 기록했다. 갤러리아백화점의 명품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17% 신장했다.

명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구매하기 보다 직접 실물을 보고 향후 A/S까지 보증되는 백화점에서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백화점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유통업체별 매출 추이에 따르면, 백화점 상품군 별 매출 비중은 '해외 유명 브랜드' 품목이 2016년 13.5%에 불과했으나, 2018년 8월에 이르러서는 21.3%까지 늘어났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성장세는 더욱 확인하게 드러난다. 롯데의 경우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9% 늘어난 7460억원을, 영업이익은 무려 57.4% 증가한 890억원 기록했다. 신세계는 18.4%, 현대는 14.9%씩 늘었다. 백화점 매출을 견인한 것은 명